

● 업·계·소·식 ●

국내 LPG소비자가격 kg당 1천원선 육박

2월에도 kg당 28.80~29.80원씩 인상...995.90원대

LPG국제가격은 내렸으나 평균환율이 대폭 상승해 인상불가피
저소득층 사용 LPG, 중산층 이상이 쓰는 도시가스보다 훨씬 비싸 논란

국내 LPG소비자가격이 kg당 1천원선에 육박하는 등 가격 인상이 그칠줄 모르고 있다.

최근 SK·SK가스·현대정유는 2월 LPG공급가격을 kg당 29.80원, LG정유·LG가스는 29.76원, S-Oil은 28.80원씩 각각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1월 국제가격은 전월보다 하락했으나 평균환율이 대폭 상승해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SK가스·현대정유는 kg당 723.50원, LG정유는 723.49원, LG가스는 723.48원, S-Oil은 722.50원으로 충전소에 공급하게 됐다.

이처럼 국내 LPG가격이 계속 인상됨에 따라 LPG는 LNG등 타연료대비 가격경쟁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참조>

또한 대부분 달동네, 산동네,

도서, 벽지등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LPG는 중산층이상이 쓰고있는 도시가스보다 훨씬

비싸 소득정책적 차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주택 취사용(LPG는 종전 수수료 적용시 가격)

구 분		프로판	LNG
세후소비자가격(A)		995.90(원/kg)	583.01(원 m ³)
○ 유효열량 천kcal당 가격(A/D)		118.56	79.32
○ LPG대비 지수(%)		100.0	66.9
전제	- 발 열 량 (kcal)(B)	12,000	10,500
	- 열 호 율 (%) (C)	70	70
	- 유효 열 량 (kcal)(D=B * C)	8,400	7,350

◆ 주택 난방용(LPG는 종전 수수료 적용시 가격)

구 분		프로판	LNG
세후소비자가격(A)		995.90(원/kg)	518.93(원 m ³)
○ 유효열량 천kcal당 가격(A/D)		97.64	58.14
○ LPG대비 지수(%)		100.0	59.6
전제	- 발 열 량 (kcal)(B)	12,000	10,500
	- 열 호 율 (%) (C)	85	85
	- 유효 열 량 (kcal)(D=B * C)	10,200	8,925

◆ 차량용(LPG는 종전 수수료 적용시 가격. 서울기준, 휘발유·경유 SK가격)

구 분		LPG	휘발유	경유
세후소비자가격(A)		467.73(원/l)	1,346(원 l)	704(원 l)
○ 유효열량 천kcal당 가격(A/D)		226.28	540.56	218.63
○ LPG대비 지수(%)		100.0	238.9	96.6
전제	- 발 열 량 (kcal)(B)	6,890	8,300	9,200
	- 열 호 율 (%) (C)	30	30	35
	- 유효 열 량 (kcal)(D=B * C)	2,067	2,490	3,220

작년 국내 LPG수요 전년대비 10.3% 증가

총 6백75만6천톤 판매 ... 프로판 2.5% 줄고, 부탄 29% 늘어

국내 LPG수요가 지난 99년에 이어 2년연속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유·수입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LPG는 모두 6백75만6천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9년의 6백12만3천톤보다 10.3%(63만3천톤)가 증가한 수치이다.

가스별로는 프로판의 경우 3백53만4천톤으로 지난 99년의 3백62만6천톤보다 2.5%가 감소했으며 부탄은 LPG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29.0%가 늘어난 3백22만2천톤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대리점(충전소) 물량은 모두 5백52만1천톤으로 99년의 4백65만6천톤보다 18.6%가 늘었으며 이중 프로판은 5.1%증가한 2백49만6천톤, 부탄은 32.7%증가한 3백2만5천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물량은 정유·수입사 전체 판매량의 81.7%로 99년의 76%보다 5%정도 늘어났다.

또한 직매물량은 99년의 57만1천톤보다 28%가 줄어든 41만1천톤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가스용도 LPG도시가스사들의 LNG전환으로 30.6%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공업원료용은 부탄은 줄었으나 프로판의 증가(10.7%)로 7.1%가 늘어난 57만4천톤으로 집계됐다.

<2000 국내 LPG용도별 판매량 증감비교>

(단위:천톤)

구분	1999		2000		증감률	
	프로판	부탄	프로판	부탄	프로판	부탄
대리점	2,376	2,280	2,496	3,025	5.1%	32.7%
직매	434	137	283	128	-34.8%	-6.6%
도시가스	360		250		-28.0%	
공업원료	456	80	505	69	10.7%	-13.8%
총계	3,626	2,497	3,534	3,222	-2.5%	29.0%

'2000 국내 LPG등록차량 1,214,083대

승용차 529,736대, 승합차...548,067대, 화물차 136,253대

자동차공업협회 집계...99년보다 42만8천대 증가

올해부터 증가세 둔화 7월 부탄특소세 대폭 인상 예정

지난해 LPG차량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에서 운행중인 LPG차량은 지난 99년의 78만6천72대보다 42만8천여대가 증가

한 1백21만4천83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승합차는 54만8천67대로 가장 많았으며 승용차 52만9천7

백36대, 화물차 13만6천2백53대, 특수차 27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6만7천5백42대 ▲경기 23만4천6백16대 ▲부산 8만4천18대 ▲대구 7만6천5백64대 순이었다.

한편 7월부터 부탄특소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LPG차량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국내 LPG차량 증감추이>

(단위:대수)

구분	96	97	98	99	2000
택시	211,409	216,874	221,031	225,195	228,654
일반차	135,351	184,103	271,510	560,877	985,429
계	346,760	400,977	492,541	786,072	1,214,083

<자료제공 : 자동차공업협회, 전국택시연합회>

부탄특소세 인상관련

LPG차보유 장애인에 신용카드 발급

남용막기위해 연간 연료비 지원액 한정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인상되는 것과 관련, LPG차를 보유한 장애인들에게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등록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탄의 세율인상에 따른 장애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분 중 상당액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과도한 차량 운행과 카드남용 방지차원에서 장애인 LPG차량운전자들의 평균 주행거리 등을 조사해 연간 연료비 지원액을 한정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등록 카드취급사는 LG캐피탈이며 현재 장애인이 보유한 LPG차량은 전국에 25만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체적거래제 연구용역시행

2월~5월까지 추진현황·문제점 등 검토

LPG체적거래제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행된다.

지난 1월 31일 산자부는 안전공사, 양수입사, 우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동안 체적거래제 연구용역을 시행기로 했다.

연구수행 내용으로는 ▲체적거래제 추진현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단독주택·집단공급업 등에 대한 개선방안 ▲도시가스 침투시 보상방안 ▲법개정 초안 등이다.

LPG용기충전량표시·허용오차조항 신설

사업자의 LPG품질유지 의무화

사업 휴·폐지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산자부 LPG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LPG충전사업자가 LPG를 용기에 충전한 때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등을 표시해야 하며 사업자는 휴·폐지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충전량등의 표시를 위해 계량을 하는 경우 산원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않아야 한다.

또한 LPG사업자들은 가스제품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허가받은 충전사업소 이외의 곳에서 LPG를 자동차에 충전해서는 안된다.

산자부는 이러한 내용의 LPG법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LPG판매사업의 영업범위를 현행 용기충전에 추가하여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의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그린벨트내 충전소배치계획 속속 발표

고양시 15곳, 남양주 5곳, 안산 5곳 등

지자체들이 그린벨트내 LPG충전소 배치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시 5곳을 비롯, 고양시 15곳, 안산 5곳, 춘천 4곳 등이며 추후 성남, 하남, 부천, 김포, 구리 등 수도권지역 배치계획도 나올 예정이다.

LPG업계, 현안과제 의견교환

1.11 토론 및 기자간담회 형식 수입·판매·전문기자·우리협회 참석

지난 1월 11일 LPG관련업계가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여러 현안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모임은 LPG산업정책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가 요청해 마련됐다는데서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산자부를 비롯, 2개 수입사, 판매업계, 5개 가스전문신문 기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 및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격 자유화, LPG법개정 등 논의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월1일부터 도입된 LPG가격자유화이후 시장가격 형성과 ▲안전공급계약 시행에 따른 용기관리문제 ▲LPG버스 보급 ▲연료간 가격격차 문제 등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LPG관련업계 모임의 정례화와 추후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의 참석을 산자부에 요청했다.

특별소비세법 공포

정유·수입사단계서 과세

현행 kg당 40원에서

2006년 7월에는 704원으로

부탄의 특별소비세를 오는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이 지난 12월29일자로 공포됐다.

정부는 부탄의 특별소비세를 오는 현행 40원/kg에서 2006년 7월에는 704원까지 매년 인상할 계획이며 정유·수입사단계에서 과세하게 된다.

신용카드 미가맹사업자 세무조사

국세청, 충전소 신용카드가맹 확대 요청

국세청은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의 신용카드 사용실태조사 결과 LPG충전소의 신용카드 가맹 가입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며 빠른 시일내에 가맹할 것을 우리회로 요청했으며 신용카드 미가맹사업자는 정밀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자리를 찾습니다. ●

- ▲정창수(27세) : 가스기사2급, 방화관리자外 (011-9568-7920)
- ▲김창우(26세) : 가스기사1급 (016-833-3560)
- ▲조광일(26세) : 가스기사 (016-276-4502)
- ▲김영석(28세) : 고압가스기능사1급外 (011-9547-3561)